

# 장애의 재활

강 세 윤

(가톨릭의대재활의학과 교수)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강조하는 교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찌기 우리 교회는 장애자복지사업에 힘써왔다. 10월에 있을 「88서울장애자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9월에 열린 「한국가톨릭장애자신앙대회」는 장애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회안에서 처음 시도된 큰 행사였다.

이 신앙대회는 정상인과 장애인 모두가 하느님에 동등한 인격자라는 인식 아래 사회가 이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하고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 글은 (사) 한국장애자재활협회발행 강세윤교수 편저「장애예방 및 치료」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장애자복지증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 I. 장애의 종류

장애의 종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잘 정의하고 있는데 등 법에서는 심신장애를 지체부자유, 시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 및 정신박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체부자유란 뇌성마비·소아마비·척수손상 환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수나 사지(상하지)에 발생한 각종 마비, 그리고 사지의 절단·관절강직·변형등으로 사지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운동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시각장애란 시력감퇴나 시야가 좁아져서 보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시력이 약해진 약시와 앞을 볼 수 없는 맹(盲)으로 구분한다.

청각장애란 듣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듣기가 어려운 난청과 들을 수 없는 농(聾)이 있다.

음성 및 언어장애는 보통 언어장애라고 하며, 말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언어장애는 듣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혼

히 청각장애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정신박약이란 지능지수가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정신지체”란 말이 쓰이기도 하며, 어린아이의 경우 “지진아”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 II. 장애의 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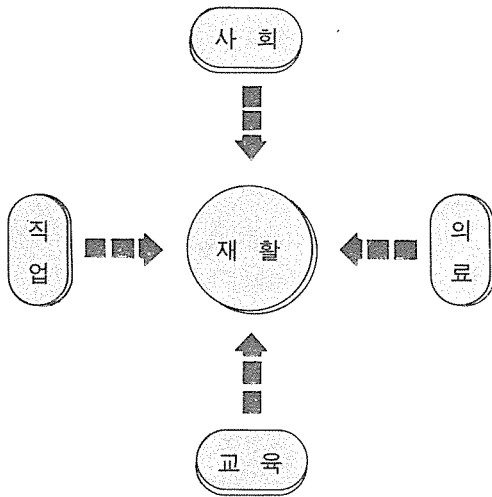
“장애”란 말이 쓰이는 곳에 거의 같이 쓰이는 말이 “재활(再活)”이란 단어이다.

재활이란 영어로는 “Rehabilitation”이라고 하는데, 6·25 직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장애자의 재활이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극복시키고 기능을 향상시켜 활동적인 삶을 다시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4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장애자 대회에서 재활이란 장애자에게 신체적·사회적·직업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최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자의 재활이란 결국 능력을 회복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활은 관여하는 분야에 따라 의료재활·교육재활·직업재활·사회재활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 1. 의료재활

장애자나 그 가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에 대한 치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의료재활이란 장애자 재활과정의 첫단계로써, 재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장애자나 그 가족의 첫번째 욕구이기도 하다.

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를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장애자를 직업인으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의료재활은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뿐 아니라 장애의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는 예방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외상에 대해 치료초기에서부터 관여하게 되며, 직업재활을 위한 기능검사와 적응훈련에도 관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가 직업을 갖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신체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적 재활은 의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요원이 팀을 이루고 시행하게 된다. 즉 재활의학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보장구 제작사·사회복지사·임상병리사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치료목표를 설정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장애에 따라서는 재활의학과 이외에도 정형외과·안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외과·소아과 등의 전문적 진료가 필요하게 된다.

의료재활은 장애의 종류·장애자의 나이·직업·가정형편 등 여러조건에 따라 치료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치료에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 및 수술치료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보조기·목발·지팡이·의사차(휠체어)를 사용하게 하며, 난청환자에게는 보청기를 착용시키고 절단환자에게는 의지를 제작하여 착용하게 한다.

장애자의 의료재활에는 정확한 진단과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료재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문가들에 의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환자나 그 가족의 욕구와 이해 그리고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2. 교육재활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아들도 정상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연령에 따라 유아교육·유치원교육 또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사정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교육내용을 일반교육과는 달리 하여야 하므로 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을 구별하여 특수교육이라 한다. 특수교육은 19세기초 유럽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특수 장애아를 기숙사에서 생활시키면서 교육하는 소위 “분리교육”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심신 장애자도 일반인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여야 한다는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도 분리교육보다는 가능한 한 일반아동과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 더 큰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견해가 대두되어 오늘날에는 통합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장애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

력을 개발시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지도하여 설정된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특수교육시설·교육기재 및 자료, 그리고 특수교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요원이 있어야 하며 이에따른 별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가 경미한 경우에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가 매우 경미할 때에는 일반학교에서 정상아동과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특수교육은 장애종류·장애정도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이 달라진다.

198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87개의 특수교육학교가 있어 장애아들이 통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종류별로는 시각장애 12개교, 정신지체 41개교, 청각장애 23개교 지체장애 11개교가 있다.

미취학 연령에 있는 장애아에게는 “조기특수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 특수교육기관이 여러 곳에 설립되어 유아기 장애아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자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이 장애아 수준에 맞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한 경미한 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다른 아이에 비하여 뛰어나므로 부모는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게 될지 모르나 실제로 있어서 장애아는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정도의 장애아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또는 특수학급에 입학하게 되면 자신의 수준보다 너무 높아 학습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부담만 더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아는 반드시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인 능력평가를 받고 아동의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가장 알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신체적 능력과 지적능력이 발달한다. 장애아도 마찬가지로 성장과 교육을 통

하여 그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능력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담당교사나 몇몇 관련 요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수교육 역시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전문교사에 의한 교육뿐 아니라, 어머니의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병행될 때 교육효과가 증진된다.

그러므로 장애자의 교육재활이 잘 이루어 지면서 어머니도 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들의 제2의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장애자에 관한 관심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차원에서의 행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좋은 교육시설을 갖춘 특수학교가 증설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장애자의 특수교육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사회재활

사회적 재활이란 말은 일반인에게는 꼭 생소한 말이다. 사회적 재활의 의미는 아마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에서 찾으면 쉬울 것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자의 재활 역시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재활이 그 기초가 되고 있으나, 궁극의 목표는 장애자를 사회로 복귀시켜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장애자가 그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활동에 제약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약때문에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다른 장애자들과 한정된 삶을 영위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장애자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회속에서 모든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일에 책임을 갖고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사회적 재활의 목적은 장애자에게 장애에 대한 의료적 치료와 교육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심리적 문제 즉 열등감·소외감·좌절

감 등을 해소하도록 도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하고, 나아가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재활이 이루어지려면 사회가 이들 장애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도록 힘쓰고, 동시에 장애자를 위한 사회 물리적 환경 즉 교통신호·공공건물의 계단·횡단보도 등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4. 직업재활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갖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는 만18세가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장애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만 18세가 되면 역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자에 대한 의료재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재활의 초기단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자의 재활은 장애자가 직업을 갖고 자신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장애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모든 과정을 직업재활이라 한다.

직업재활은 장애자에 대한 단순한 직업 알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재활의 주목적은 장애자가 장애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장소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장애를 입기 전에 갖고 있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특별히 제공된 훈련장과 훈련기기를 이용하여 기술을 배워 그 분야에 취업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장애자의 직업재활은 그의 신체적 및 지적능력·교육정도·그리고 직종에 대한 적성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현재 장애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알맞은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시키는 길이다. 대체로 다소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단기일의 수습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아무런 수

습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단순작업에 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필요치 않다.

두번째는 특정한 기술을 장기간 훈련받아 기능공으로서 취업하는 길이다. 이러한 경우는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원(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원(소)마다 훈련대상자 선정기준과 훈련직종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훈련이 가능한 직종은 약340개 있는데 이중 장애자에게 가능한 직종은 장애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약280개정도 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각·수예·도자기·사진·시계수리·텔레비전 수리·용접·선반 및 전산(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20여개의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장애자가 자기의 능력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훈련하여 기술을 습득한뒤 취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손재치가 있어야 하며, 어떤 직종은 판단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심을 요하는 직종도 있다.

직업재활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직종선택이다. 직종을 선택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지적수준·교육 및 사회경험·본인 및 가족의 욕구·심리상태·직종에 대한 적성 그리고 취업전망 등 다각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판정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직업 상담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지원자에게는 첫째,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둘째, 작업표본(Work Sample)에 의한 작업평가, 셋째, 현장실습에 의한 작업평가 등을 실시한다. 그 후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합숙이나 또는 통원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

세번째의 직업훈련은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에게 단순한 공정의 작업을 시키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보호작업 대상자도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간단한 작업지시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작업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자가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시설과 유능한 교사 그리고 장애자 자신의 인내와 노력이 있을 때에는 장애자도 훌륭한 기능인이 될 수 있다.

유엔(UN)에서는 1981년도를 “장애자의 해”로 정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81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세계 장애자 기능올림픽(Abilympic)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었다. 장애자 기능올림픽은 장애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능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자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장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85년 10월에는 제 2회 세계대회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개최되어 목공예·편물·선반·

시계·라디오 수리·컴퓨터 등 12종목의 경연이 있었는데 60개 참가국중 우리나라의 참가선수들이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의 기능올림픽 대회에서의 금메달보다 더 값진 것이었으며, 많은 장애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원(소)의 수는 장애자 수에 비하여 매우 적다. 그러나 보사부 당국이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직업훈련원(소)가 많이 신설되고 확장될 전망이며, 또한 장애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 보다 많은 장애자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장애자에 대한 에티켓

### ■ 장애자에 대한 에티켓

- ①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 ②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자 역시 각기 다르다.  
장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하라.
- ③ 장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의 표현이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서로 도와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④ 장애자를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오직 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라.  
많은 시각장애자들이 남의 도움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지체장애자들도 넘어졌을때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할 것이다.
- ⑤ 장애자를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고 쓸데없는 참견이다.

⑥ 잘 모르는 장애자를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보지 말라. 과잉보호나 과잉염려, 그리고 과잉친절은 금물이다.

⑦ 보행이나 대화시 장애자 자신의 보조대로 하도록 안내하라. 그리고 장애자와 식사할 때 음식 먹는 일을 돕지 말라.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것이다.

⑧ 동정이나 자선을 베풀지 말라. 장애자는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⑨ 장애자에 대해서 앞질러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그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 ■ 청각장애자에 대해

① 청각장애자 가운데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많다.



② 대화방법에는 우선 구화법이 있는데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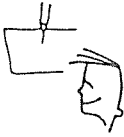
의 모양을 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방법이다. 이 때 몸의 동작을 섞으면서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며 여유를 갖고 천천히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③ 수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화로 하라.



④ 필기법은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읽어 주는 방법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히 전달된다.



⑤ 청각장애자가 가장 불편을 느낄 때에는 보행중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병에 걸려 병원에 갔으나 접수창구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 ■ 지체부자유자에 대해

① 휠체어 사용자가 거리에서 곤란해 할 경우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줘라.



②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2,3명이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휠체어를 들어야 한다.



③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 즉, 목발이나 의족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들에겐 자리를 양보하라.



④ 목발 사용자는 계단이나 턱에서 곤란을 느낄 때가 많다. 도움이 필요한가를 물어 보고 도와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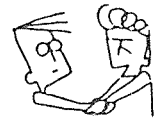
⑤ 우천시에 목발 사용자는 제일 곤란을 느낀다. 그것은 우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이들은 도와줘야 한다.



⑥ 목발사용자가 넘어져서 목발이 손에 닿기 힘든 곳에 떨어졌을 때는 바로 목발을 주워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손을 써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시각장애자에 대해

① 인사할 때는 먼저 말을 걸어주고 악수하라.



② 시각장애자 중에는 전맹과 약시가 있는데 돕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게 필요하다.

③ 방향과 장소를 알려줄 때는 전후좌우와 몇 발짝, 몇 미터 등 정확한 위치를 말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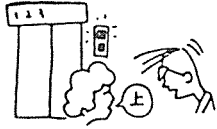


④ 안내할 때는 흰 지팡이 반대쪽에 서서 자기 팔을 빌려 주고 시각장애자의 반보앞에서 걸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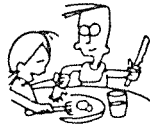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자의 눈이므로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을 붙잡는다가, 당긴다가, 민다가 하는 것은 금물이다.

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줘야 한다.



㉕ 차 대접 또는 식사시, 먼저 각 그릇의 위치와 그 음식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확실히 설명해줘야 한다. (그릇의 위치는 시계방향으로 말하면 빨리 알아차린다.)



## ■ 휠체어 장애자를 돕는 방법

### • 돕는 방법

1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건다.



2 몸을 앞으로 옮기고 발받침을 올린다.



3 발위치를 넓히고 허리를 충분히 낮추고 잔등과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 넣는다.



4 안고나면 쪽 안으로 당겨준다.



5 일어선다.



### • 휠체어에 앉히는 방법

1 휠체어에 브레이크 장치를 하고 발판을 올린다.



2 쿠션을 놓고, 본인을 앉힌다.



3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인쪽 깊숙이 앉힌다.

